

비속어의 영한번역 사례연구: 격식성을 중심으로

한 미 선
(이화여대)

1. 서론

번역이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번역의 궁극적인 취지는 한 언어로 쓰인 메시지를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다. 이때 무엇을 원문에 최대한 가깝게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이고, 그 해답은 번역 대상 텍스트의 유형에서 찾아야 한다. 텍스트 유형에 따른 표현방식을 문체라고 하는데, 이때 문체¹⁾는 담화 격식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다. 흔히 비문학 텍스트의 경우, 저자가 단일 화자로서 일관된 문체의 격식을 유지한다. 반면, 문학 텍스트에 속하는 소설의 경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격식이 높은 것에서부터 격식이 매우 낮은 것까지 다양한 격식의 담화가 등장한다. 등장인물들이 구사하는 담화의 문체는 인물의 성격, 발화 상황(문맥), 대화

1) 텍스트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개별 담화에 적용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 담화에 국한된 개념으로 사용한다.

자 간의 관계 등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번역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본고는 소설 번역에서 인물들이 구사하는 담화문의 문체 보존을 위해 담화의 격식을 맞춰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특히, 최하위 문체 격식을 구성하는 어휘 요소인 비속어의 격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호밀밭의 파수꾼(Catcher in the Rye)²⁾』, 『브리짓존스의 일기(Bridget Johns' Diary)³⁾』, 『섹스 앤더 시티(Sex and the City)⁴⁾』, 세 편의 소설 영한 번역본을 대상으로 어휘 격식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했다. 이때 번역자의 비속어 번역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작품에서 일부만을 분석 범위로 국한하였다. 소설의 구성 단계인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 소설 전체 분량에서 각각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보고, 인물의 특징이나 사건이 서서히 드러나는 전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50쪽을 설정하였다.

상기 세 편의 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세 편 모두 비속어가 다수 등장하며, 텍스트 내에서 메타 언어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경우, 베트남 전 이후 기성세대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및 반감이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거친 언어를 통해서 구체화되어 있다. 한편 『브리짓존스의 일기』와 『섹스 앤더 시티』는 ‘칙릿⁵⁾’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대표하는 작품들로, 도시 여성들의 성생활과 사회생활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여주인공들이 그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노골적인 성 표현과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원저자는 이와 같은 거친 언어와 대담한 표현을 새롭고 독립적인 여성상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한다. 이처럼 세 편의 소설 모두에서 비속어는 단순히 문학의 언어적 재료가 아닌 저자의 의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메타언어적 기능을 수행한다.

2) 공경희 옮김 2002. 서울: 민음사

3) 임지현 옮김 2009. 서울: 문학사상사

4) 박미영 옮김 2007. 서울: 아침나라

5) 칙릿(Chick Lit)이란 ‘젊은 여성’을 뜻하는 미국 속어(slang) ‘칙(Chick)’과 ‘문학(Literature)’의 줄임말 ‘릿(Lit)’이 조합된 용어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수많은 발행부수를 기록하며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원작에 바탕을 둔 영화와 드라마도 다수 제작되었다(네이버 백과사전).

따라서 비속어를 적절히 번역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원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전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한 언어로 쓰인 메시지를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다른 언어로 옮겨야 하는 번역의 궁극적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최하위 격식 등급을 구성하는 비속어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비어나 속어의 경우 특수한 표현의도에 따라 화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어휘라는 점에서 반드시 원문과 유사한 격식으로 번역해야 문체효과가 충실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어휘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사용하는 비어나 속어는 인물의 성격, 사회적 배경, 발화상황, 저자의 의도 등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텍스트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특수한 표현의도를 위해 선택된 어휘인 비속어를 어휘 격식이 일치하는 어휘로 번역하는 것이 문체효과를 보존하는 방법임을 세 편의 소설 번역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격식성이란 상황에 맞게 격식을 차리는 특성을 말하는데, 글을 쓰거나 말할 때 그 상황에 적절한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김순미 2010: 127). 페티트(Pettit 2005: 3)는 영어의 격식을 크게 비격식체, 표준어체, 격식체로 분류한다. 비격식체에는 비어나 속어가, 표준어체에는 일상어 및 중립어가, 격식체에는 문학 및 전문 용어가 각각 사용된다.

주스(Joos 1965: 11)나 스트레븐스(Strevens 1967: 85)는 문체의 격식을 좀더 세분화된 5단계로 제시한다. 이들이 제시한 5단계 문체 격식은 동결체(frozen), 격식체(formal), 상담체(consultative), 평상체(causal), 친밀체(intimate)이다. 동결체, 격식체, 상담체는 어휘의 기본적인 의미를 통한 정보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평상체나 친밀체는 친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표현 방식으로 속어나 은어가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주스나 스트레븐스의 문체 격식은 대화자 간의 친밀 정도나 정보 공유 유무에 따라 문체를 구성하는 어휘나 문법

요소의 선택이 달라진다.

뉴마크(Newmark 1988: 13)는 주스나 스트레븐스의 5단계 격식 등급을 확장하여, 공문서체, 문어체, 중립어체, 일상어체, 속어체, 금기어체 등 총 8단계로 문체의 격식을 분류하고 있다. 뉴마크의 8단계 문체 격식은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대화자 간의 감정 개입 정도에 기초하여 선택되는 어휘 요소나 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일상어체, 속어체, 금기어체에는 화자의 감정이 점차 부정적으로 강화되는 데 반해, 공문서체, 격식체, 중립어체는 중립적인 감정의 톤을 유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뉴마크는 격식성과 화자의 감정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스, 스트레븐스, 뉴마크 등이 제시한 각각의 문체 격식은 문법적인 요소(조동사)나 어휘 요소(특정 어휘나 명사형)에 따라 달라진다. 주스나 스트레븐스가 제시한 동결체, 격식체, 상담체와 뉴마크가 제시한 공문서체, 문어체, 중립어체는 주로 글말(문어)에서의 사용빈도가 높은 문체이며, 평상체나 친밀체/일상어체, 속어체, 금기어체는 주로 입말(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체이다.

위의 세 학자들이 제시한 문체의 격식은 화자가 대화자와의 관계(친밀감의 정도),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공적/사적), 메시지 전달 방식(문어/구어)에 따라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상기 요소들이 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어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어의 특징은 청자를 높이고 화자 자신은 낮추는 것을 언어 규범으로 삼는다(김태엽 2007: 15; 이정복 2001: 13-15). 이 때문에 한국어의 격식에 관한 논의는 대우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우법이란 한국어의 특징적인 문법 현상이며 타인을 예우하는 보편적인 언어예절이다. 청자대우법과 자기대우법으로 나누어지는 한국어의 대우법과 관련하여 청자대우법을 중심으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방증이다.

대체적으로 한국어의 격식은 합쇼/해요/하오/하계/해/해라 6개 등급으로 나뉜다(최석재 2007: 405). 과거 이와 같은 언어 격식은 화자와 청자 간의 상하관계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고방식이 확립되면서, 대화자 간의 상하관계보다는 유대관계(solidarity)와 힘(power)의 관계에 따라 격식이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유송영 1994; 이정복 1998; 이경우 2001, 2004). 청자의 힘이 더 강할수록 격식이 높은 합쇼체

의 방향으로 격식이 결정되고, 유대관계가 더 강할 경우 격식이 낮은 해라체의 방향으로 격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대우법은 화자가 청자로부터 받는 압력이 클수록 격식이 높은 언어를 선택한다. 특히 청자가 불특정 다수인 대중일 때, 화자가 느끼는 청자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언어 격식이 높아질 것이다. 연설문, 방송의 사회자 멘트 등이 높은 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실례들이다.

상기에서 영어의 격식과 한국어의 대우법의 격식을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의 문체 격식이 어휘요소나 서법동사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한국어의 격식은 주로 종결어미 활용형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영어의 문체 격식을 종결어미 활용 형에 따라 언어 격식이 결정되는 한국어의 대우법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문의 격식을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보게 될 비속어는 문체 격식에서 주스의 속어체나 뉴마크의 속어체 및 금기어체와 같이 가장 낮은 문체 격식을 구성하는 어휘 요소이다. 따라서 비속어가 포함된 원문의 문체 격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휘 요소의 격식을 일치시켜 번역문에서도 비어나 속어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번역방법이다. 그러나 비어나 속어가 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어휘라는 점에서 청자를 대우하는 한국어의 언어규범이 번역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3.1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 등급

본고는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 분석하여 비속어의 격식 변화와 이로 인한 텍스트 내적 손실을 고찰하고, 담화문의 문체 보존을 위해 어휘 격식을 일치시키는 번역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비속어는 문체 격식을 낮추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뉴마크가 제안한 문체 격식 등급에서 최하위인 속어체와 금기어체를 구성하는 어휘 요소이다.

클레어(Claire)는 영어 어휘의 사회적 등급을 분류하면서 속어와 비어를 가장 격식이 낮은 어휘로 분류한 바 있다. 클레어가 제시한 어휘의 사회적 등급은

격식어, 일상어, 완곡어, 아동어, 속어, 비어 총 6단계이며, 왼쪽으로 갈수록 어휘의 격식은 낮아진다(민주현 옮김 1995: 15-21).

어휘 격식이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속어와 비어가 담화문에 포함될 경우, 해당 담화문은 최하위 등급의 문체적 특성을 띠게 된다. 뉴마크가 제시한 문체 격식 중 속어체와 금기어체는 다른 문체 격식 등급과 달리 속어와 비어의 본연의 특성으로 인해 담화문이 전반적으로 청자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다. 번역문에서 이러한 어휘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격식의 어휘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원문에 포함된 비속어의 어휘 격식이 번역문에서도 보존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뉴마크와 클레어의 제안을 원안으로 하여 영어와 한국어의 5단계 어휘 격식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기 언급한 뉴마크의 문체 격식에서 보듯이, 최하위 문체 등급인 속어체와 금기어체의 특징적 요소가 속어와 비어이며, 클레어의 어휘 등급에서도 속어와 비어가 최하위 등급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비속어는 문체 격식을 결정하는 어휘요소라는 점에서 어휘의 등급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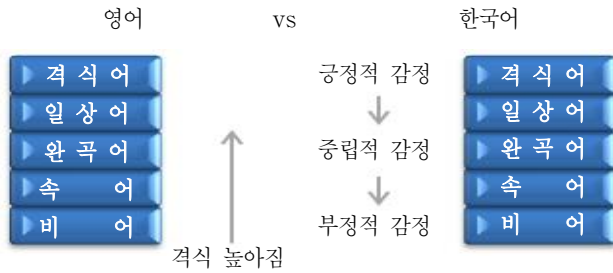
영어의 어휘 등급은 클레어의 원안에 기초해 최상위의 격식어, 일상어, 완곡어, 속어, 최하위의 비어 5 단계로 설정하였다. 클레어가 제시한 아동어는 비어나 속어의 부정적인 어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완곡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완곡어로 편입시키기로 한다.

한편 한국어의 어휘 등급 모델은 김동언(2009: 9-10)의 어휘 유형 분류를 참조하였다. 김동언은 화자의 표현의도에 따른 어휘의 유형을 존아어, 완곡어, 속어, 비어로 분류하고, 이 어휘들이 상황이나 표현 의도에 따라 선택되며 대체적으로 감정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존아어는 존대어와 우아어의 통칭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완곡어는 중립적인 감정의 가치를, 비어나 속어는 부정적 감정의 가치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김동언의 어휘 분류에 근거하여, 존아어에 해당하는 어휘를 격식어로 명명하고 최상위 어휘 등급으로 분류한다. 격식어 다음에 오는 상위 어휘 등급으로 김동언의 분류에는 들어 있지 않은 일상어를 포함시킨다. 여기서 일상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의미한다. 그 다음 어휘 등급으로 중립적 가치의 완곡어를, 마지막으로 속어

와 최하위 어휘 등급에 비어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한국어의 어휘 등급은 모두 5단계로 격식어, 일상어, 완곡어, 속어, 비어의 순으로 단계를 부여한다. 이때 어휘의 격식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아래 <그림1>은 본고에서 분석 기준으로 사용하게 될 영어와 한국어의 5단계 어휘 등급 모델이다.

<그림1> 영어와 한국어의 5단계 어휘 등급 모델



상기 5단계 어휘 등급 모델을 기반으로 세 편의 소설 원문의 비어나 속어가 번역문에서도 동일한 격식의 어휘로 번역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게 된다. 분석 방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ST의 비어를 TT의 비어로 번역한 경우에 격식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이외의 TT의 속어, 완곡어, 일상어, 격식어로 번역하거나 생략한 경우, 격식이 높아진 사례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ST의 속어를 TT 속어로 번역한 경우, 격식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한편 TT의 완곡어, 일상어, 격식어로 번역하거나 생략한 경우 격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류한다. ST의 상위 등급의 어휘들을 속어나 비어로 번역한 경우에는 원문에 비해 격식이 더 낮아진 것으로 분류한다. 이때 각 어휘의 격식 판단은 영영사전과 국어사전 및 비속어 사전의 분류표지에 근거한다.

비어나 속어는 문체의 최하위 격식을 구성하는 어휘 요소이고, 화자의 감정이 담겨 있는 어휘이므로 격식이 동일한 어휘로 번역하지 않을 경우, 번역문에서 원문의 문체효과를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독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원저자의 의도를 포착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자의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 편의 소설과 같이 비속어가 단순한 어휘 요소의 기능을 넘어서 저자의 의도가 투영된 메타 언어적 성격을 띠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ST의 비어나 속어를 어휘 격식이 일치하는 TT의 비어나 속어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고의 주장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 체계 내에서 비어와 속어가 각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영사전과 국어사전에 제시된 비어와 속어의 정의 및 그 기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2 비어 및 속어의 정의 및 기능

비속어는 어감이 좋지 않거나 점잖지 못한 비어와 속어의 통칭이다. 일반적으로 비어와 속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김동언⁶⁾은 비속어를 비어와 속어로 분류하고, 비어를 불쾌감, 분노, 억울함 등을 표현하는 욕말, 평어에 낮추어 보는 의미가 있는 낮춤말, 조롱말로 세분한다. 한편 속어는 비어처럼 낮춤의 의미는 없으나 고상하지 못한 뜻을 가진 속된 말이나 우스갯소리나 재미를 더하기 위한 장난말로 세분한다. 김동언이 분류한 비어와 속어의 가장 큰 차이는 타인을 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즉, 화자를 불쾌하게 하느냐에 있다.

그렇다면 영어와 한국어 체계 내에서 비어와 속어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대사전(1999)』과 영영사전으로는 온라인 *Oxford Dictionaries*를 각각 참고하였다.

먼저 영영사전에 제시된 비어(vulgarism)와 속어(slang)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slang: very informal words and expressions that are more common in spoken language, especially used by particular group of people, for

6) 국내 유일의 비속어 사전인 『국어 비속어 사전(2009)』을 편찬하면서 비속어를 비어와 속어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example, children, criminals, soldiers, etc.

vulgarism: a word or expression that is considered inelegant, especially one that makes explicit and offensive reference to sex or bodily functions.

속어는 주로 구어에 사용되는 비격식체 어휘나 표현을 지칭하며, 특히 어린이, 범죄자, 군인 등과 같이 특정 집단에서 주로 사용된다. 한편 비어는 우아하지 못한 어휘나 표현으로, 특히 성이나 신체 기능에 관한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어휘나 표현을 말한다. 비어나 속어 모두 구어의 비격식체 표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속어의 경우 친근감이나 집단 내 결속력을 상징하는 어휘로 사용되는 반면, 비어는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진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국어사전에 정의된 속어와 비어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속어: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이나 상말⁷⁾

비어: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이나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로 군인을 ‘군마리’로 부르는 것이 포함

상기 제시된 『표준 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속어는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어휘로 격이 낮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어는 점잖지 못한 말로 대상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어휘이다.

영영사전과 국어사전의 정의에서 보듯이, 영어와 한국어에서 속어는 비격식체 표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대화자 간에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말이라는 점에서 친근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어는 격이 매우 낮은 말로서 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어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속어와 비어를 구분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청자에게 불쾌감 유발 여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동언의 비어 및 속어의 구분과도 일치한다. 요컨대, 비어 및 속어는 표현의도의 측면에서 불쾌감 유발 유무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ST의 비어를 TT의 비어로, ST의 속어는 TT의 속

7) 항간에 떠돌며 쓰이는 속된 말을 의미한다.

어로 번역해야 표현의도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즉, 원문에서 의도했던 문체효과를 번역문에서 최대한 근접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석사례 및 결과

4.1 분석사례

비어와 속어를 차별화하는 가장 큰 차이는 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아래 예문들은 ST의 비어를 격식이 높은 TT 어휘로 번역한 사례들이다. 이를 통해서 번역문에서 어휘 격식이 높아질 경우, 담화문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1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

아래 제시된 사례들은 ST의 비속어를 격식이 높은 TT 어휘로 번역한 것으로, 어휘 격식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담화문의 문체 격식이 함께 높아지고, 그 결과 ST의 문체효과를 충실히 재현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문1> ST: “I told you quite specifically the first time you tried to undo my skirt that I am not into *emotional fuckwittage*. It was very bad to carry on flirting, sleep with me then not even follow it up with a phone call, and try to pretend the whole thing never happened. Did you just ask me to Prague to make sure you could still sleep with me if you wanted to as if we were on some sort of ladder?”(*Bridget Johns's Diary*)

TT: “당신이 처음 내 스커트를 벗기려 할 때, 난 분명히 당신에게 **정서 장애자** 따윈 흥미 없다고 말했을 텐데요. 나에게 추파를 던지고 같이 잔 다음에 전화 한 통 없이, 마치 아무런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한 건 매우 비열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마치 사다리 관계에라도 놓여 있다는 듯, 당신이 나하고 자고 싶으면 언제든지 잘 수 있다는 걸 사전에 확실히 해두기 위해 프라하에서 만나자고 한 건가요?” (임지현 2009: 107)

대안번역: “당신이 처음 내 스커트를 벗기려 할 때, 난 분명히 당신에게 **야비한 색گل** 따윈 흥미 없다고 말했을 텐데요.”

<예문1>에서 ST의 어휘 ‘emotional fuckwittage’는 ‘fuck’의 합성어라는 점에서 비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fuckwittage’는 ‘unintelligent person’이나 ‘idiot’와 동의어로 해당 문맥에서는 여성의 감정을 이용하는 비열한 멍청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어휘이다. 여주인공 브리짓존스가 프라하로 밀월여행을 가자던 다니엘이 약속을 취소한 데 대해 격분해서 속사포처럼 쏘아붙이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용어인 ‘정서 장애자’로 번역어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담화문 전체에서 ST의 비어를 TT의 격식어로 번역함으로써 비어가 갖는 불쾌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해당 어휘가 갖는 상대를 비난하는 의미도 사라졌다. 또한 해당 어휘는 『브리짓존스의 일기』의 저자 헬렌 필딩이 만든 어휘라는 점에서도 진부한 표현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어휘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번역방법이다. 대안번역으로 여자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비어인 색골을 사용하여 ‘emotional fuckwittage’를 ‘야비한 색골’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예문2> ST: “When you meet people in New York, all you get is their bullshit,” said Peter, not noticing that his paint-brushes were drying out. (*Sex and the City*)

TT: “뉴욕에서 듣는 소리란 순 헛소리뿐이지.” 피터는 붓이 말라가는 것도 잊은 채 한마디 거들었다. (박미영 2007: 88)

대안번역: “뉴욕에서 듣는 건 다 개소리지.”

<예문2>의 원문에 사용된 어휘 ‘bullshit’는 비어로 분류되는 어휘로 ‘nonsense’의 의미를 갖는다. 해당 대화문에 담긴 화자의 감정은 뉴욕이라는 도시에 대한 회의적인 반감이다. 그러한 부정적 감정이 원문의 어휘에는 담겨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일상어인 ‘헛소리’로 번역하여 원문에 비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다소 누그러졌다. 대안번역으로 도착어의 비어인 ‘개소리’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예문3> ST: “Do you know? And I just thought he was a pretty good fuck who was good with my kid,” Ray said. “I ain’t worried about that. I don’t think I can trust the guy.” (*Sex and the City*)

TT: “지금도 난 우리 애한테 잘 해 줘서 **괜찮은 사내**라고 생각했는데. 뭐, 상관없어. 사내란 믿을 존재가 못되니까.”(박미영 2007: 79)
 대안번역: “지금도 난 우리 애한테 잘 해줬던 쓸 만한 **높이**라고 생각하지 만. 뭐, 상관없어.”

<예문3>은 레이와 아말리타의 대화 내용이다. 사생활이 지저분한 남성 ‘스네이크’가 화제의 대상으로 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원문의 ‘fuck’는 ‘uncool, jerk, asshole’과 동일한 의미로 상대를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괜찮은 사내’라는 일상어로 번역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면서 스네이크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처럼 부정적 감정이 담긴 어휘를 원문의 격식에 비해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할 경우,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실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4> ST: Have had to slave for two days, and now they will all swarm in, demanding food like cuckoos. Feel like opening door and shouting, “**Oh, go fuck yourselves.**”(Bridget Johns’s Diary)
 TT: 이틀 동안이나 꼬박 중노동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모두 모여들어 뼈 꾸기 새끼들처럼 먹을 걸 달라고 종알거리겠지, 문을 열어젖히고 **씩 끼 지지 못해!**하고 소리 지르고 싶다.(임지현 2009: 117)
 대안번역: **젠장**, 씹 끼져!

위의 <예문4>에는 자신의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해놓았지만 음식 장만은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씻지도 못한 상황에서 초인종이 울리자 당황하여 짜증을 내는 브리짓존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영어에서 “go fuck yourself”는 화자가 몹시 화가 나 있음을 표현하는 말로 격식이 가장 낮은 비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번역문에 사용된 ‘끼지다’는 속어로 원문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완화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 ‘go fuck yourselves’에 해당하는 표현으로는 ‘끼지다’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 ‘젠장, 씹 끼져!’로 번역할 수 있겠다.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체계의 차이로 격식이 일치하는 등가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어 원문에 담겨 있는 극대화된 부정적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육설+내용어’ 구조의 번역 방법을 제안한다.

<예문5> ST: “No. It really wouldn’t be fair to you. You see, I was going to bring this, sort of, date with me. I mean, it’s nothing. It’s just some girl who’s stupid enough to let me shag her for a couple of weeks.”(*Bridget Johns’s Diary*)

TT: “아냐. 그럼 당신한테 미안할 거 같아. 원래 난 여자를 데리고 갈 작정이었어. 별 의미는 없는 여자야. 그저 나와 몇 주 동안 같이 잡자 줄, 바보 같은 계집애일 뿐이야.”(임지현 2009: 166)

대안번역: 그저 몸뚱아리나 대줄 녀 빠진 것들 말야.

<예문5>에서 ST의 ‘shag’는 ‘성관계를 하다’를 극도로 천하게 표현한 비어이다. 그런데 TT에서는 ‘잡을 자다’라는 완곡어로 번역하여 성관계의 가벼움을 전달하려고 했던 원문의 의미가 상당 부분 축소되어 있다. 이러한 번역어 선택의 이유는 한국어의 ‘성관계를 맺다’에 해당하는 어휘가 영어에 비해 덜 세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어에서 ST의 어휘와 격식이 일치하는 어휘는 ‘쌌’이나 ‘쫓’과 같은 남녀 생식기에 ‘-하다’를 결합한 활용형이 존재하기는 하나, 번역자의 입장에서 입말이 아닌 글말에서 해당 어휘를 번역어로 선택하기에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비속어의 특성상 대화자 간에는 친밀감을 표출하는 어휘가 될 수 있으나 제 3의 청자 입장(독자)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위 예문에 대한 대안 번역으로는 “그저 몸뚱아리나 대줄 녀 빠진 것들을 말야.”를 제안한다.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보다는 몸을 낮추는 의미인 ‘몸뚱아리’라는 비어로 대체할 경우, 해당 담화문에서 무의미한 가벼운 성행위라는 의미가 그런대로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예문6> ST: “Besides, men are so fucking competitive with each other, you’d think they wouldn’t be able to deal with it.”(*Sex and the City*)

TT: (남자 둘, 여자 하나의 트리플을 제안한 남자는 한 번도 없었어.) “꼴사나운 경쟁심 때문에 남자들이 제대로 해낼지도 의문이고.”(박미영 2007: 96)

대안번역: 지들끼리 경쟁이 존나 심해서 제대로 할 수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위의 <예문6>은 크로이가 트리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대사이다. 경쟁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어휘는 ‘fucking’이지만 해당 번역에서는 ‘보기 흉한 행동이나 모습’을 의미하는 일상어 ‘꼴사나운’이라는 격식이 높은 어휘를 사용하여 담화문의 감정적 분위기가 완화되었다. 대안 번역으로는 ‘지들끼리 경쟁이 존나 심해서 제대로 할 수나 있을지도 모르겠고.’를 제안한다.

4.2.2 비속어의 생략

아래 제시된 예문들은 비속어를 번역문에서 생략하고 번역한 사례들이다. 상위 격식의 어휘로 대체하여 번역한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담화문의 격식이 높아지고, 그 결과 원문의 감정적 가치가 완화되어 문체효과를 보존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7> ST: “Do you know where the toilet are?” I blurted out. **Damn.**

Damn.(Bridget Johns’s Diary)

TT: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는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Ø]. (임지현 2009: 133)

대안 번역: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휴, 쟈장!**”

상기 <예문7>은 브리짓존스가 회사 동료들의 조롱에 당황하여 화장실 위치를 묻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다. 이때 자신의 멍청한 행동을 자책하는 의미로 원문에서는 ‘damn’이라는 욕설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ST의 비어 ‘damn’의 번역을 생략하고 ‘나는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로만 번역하여 금기어체 담화문이 일상어체로 변했다. 그 결과 자책의 의미가 실감나게 전달되지 않았고, 브리짓존스의 성격, 발화 맥락에서의 유머효과 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안으로는 ‘damn’을 ‘젠장’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damn’은 주인공 브리짓존스가 ‘fuck’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욕설이며, 실제로 번역자가 해당어휘를 ‘젠장’이나 ‘빌어먹을’로 주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인공의 언어사용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일관되게 번역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문8> ST: “Oh...How is Eddie” she said. “This is certainly a peculiar time to call a person up, though. Jesus Christ.” (*The Catcher in the Rye*)
 TT: “아.....에디는 어떻게 지내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전화 걸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Ø]”(공경희 2002: 91)
 대안번역: 제기랄...그건 그렇고 지금이 몇 시인 줄은 알아요?

<예문8>은 홀든이 친구를 찾기 위해 늦은 밤 한 여인의 집에 전화를 거는 상황이다. 앞서 등장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암호랑이 같았다. 그녀는 거의 고함을 지르듯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홀든의 독백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늦은 시간 낮선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때문에 몹시 화가 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사회적으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하층민의 모습을 대표한다. 프린스턴 대학에 다니는 친구를 찾겠다는 말에 한껏 예의를 갖추려고 했지만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그런데 번역자는 격식을 차린 문장 뒤에, 화를 못 견뎌 내뿜는 혼잣말인 ‘Jesus Christ’의 번역을 생략했다. 위선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라는 점에서 ST의 비어를 TT 비어로 번역해야 대조적인 문체적 특징을 재현할 수 있다.

<예문9> ST: “You got robbed.” He started cleaning his goddam fingernails with the end of a match. (*The Catcher in the Rye*)
 TT: “바가지 쓴 거야.” 그는 성냥을 집어 들고 [Ø] 손톱 밑을 파내면서 말했다. (공경희 2002: 37)
 대안번역:빌어먹을 손톱 밑을 파내면서 말했다.

<예문9>는 애클리가 손톱 밑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불결하다고 느낀다는 점에서 홀든이 평소 때 애클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만을 표시하는 ‘goddam’이라는 비어를 번역문에서는 생략하여 금기어체에서 일상어체로 문체 격식이 높아졌다. 번역자가 ‘goddam, fucking, damn’과 같이 명제적 의미가 아닌 명제적 의미에 변형을 가져오거나 감정과 관련된 표현적 의미가 첨가되는 어휘를 생략하고 번역할 경우, 정보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어휘를 생략하고 번역할 경우, 감정표현, 인물의 개성, 문맥상황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함축된 의미가 사라지면서 문체효과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예문10> ST: If you just **had a goddam operation** on your goddam wuddaycallit. Huh?(*The Catcher in the Rye*)

TT: 그 뭐라는 데를 [Ø]수술했다면서? (공경희 2002: 133)

대안번역: **젠장, 똥시깡인가**를 수술했다면서?

위 <예문10>은 모텔 방에서 만난 창녀가 홀든에게 하는 대사이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의 입장에서는 빨리 임무를 마치고 자리를 뜨고 싶지만 홀든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하다. 창녀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수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러면서 왜 자신을 불렀느냐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창녀의 불쾌감이 드러나 있는 어휘가 ST의 ‘goddam’에 잘 나타나 있으나 비어에 해당하는 TT어휘를 생략하고 번역한 결과, 담화문 전체의 분위기가 전혀 살지 않았다. 정형화된 창녀의 낮은 사회적 계층을 상징할 수 있는 ‘goddam’의 번역을 생략한 것과 전형적인 구어체 문장의 ‘wuddaycallit’을 표준어인 ‘그 뭐라는 데’로 번역하여 여성 화자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 부족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된 번역문 대신 ‘젠장, 똥시깡인가를 수술했다면서?’로 번역한다면 발화상황과 화자의 특징이 좀 더 원문과 유사하게 전달될 수 있다.

<예문11> ST: “I was staying with Catherine Johnson-Bates in London and she was driving me crazy, she kept complaining about my stuff all over **her fucking flat**...well, she’s a Virgo, so what can you expect?”(*Sex and the City*)

TT: “런던에선 캐서린 존슨 베이츠의 집에 머물렀는데, 계속 내 성질을 건드리면서 [Ø] 쌓아 높은 내 물건을 갖고 불평하더라구. 아직도 숫처녀인 걸 보면, 뻥할 뻥자지, 뭐.”(박미영 2007: 73)

대안번역: **빌어먹을 지 집에** 내 물건 좀 늘어났다고 생난리를 치더라고.

위의 <예문11>은 아말리타가 캐리에게 하는 대사이다. ‘아직도 숫처녀인 걸 보면, 뻥할 뻥자지.’라는 대사에서 보듯이 아말리타는 캐서린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금기어체를 구성하는 원문의 ‘fucking’이라는 어휘의 번역을 생략하여 유표적인 담화문이 무표적이고 일반적인 담화문으로 변했다. 영어의 ‘fucking, goddam, damn’ 등은 뒤에 위치한 어휘를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자는 해당 어휘를 문자 그대로

로 번역하는 대신 유사한 상황에서 목표 문화의 화자가 발화했을 법한 어휘로 번역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 아파트를 어질러 났다고 개지랄을 떨더라고’로 번역하여 담화문 전체의 격식을 낮추거나 연구자가 제시한 것처럼 ‘빌어먹을’, ‘젠장’과 같은 어휘에 내용어를 결합한 형태로 번역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4.2 분석결과

본고의 분석 대상 소설인 『호밀밭의 파수꾼』의 경우, 비속어가 포함된 문장이 총 15쌍, 『브리짓존스의 일기』와 『섹스 앤더 시티』는 각각 총 31쌍씩 발견됐다. 영어와 한국어의 5단계 어휘 격식 모델을 근거로 세 편의 소설 각각 50쪽 내에서 비속어가 포함된 ST 대화체 문장과 번역문에서 이에 대응하는 TT 문장을 수집하여 어휘 격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1>은 세 편의 분석 대상 소설에서 추출한 번역쌍을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어휘 격식의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어휘 격식의 변화양상

서명	번역쌍 총수	높아짐 (%)	변화없음 (%)	낮아짐 (%)
호밀밭의 파수꾼	15쌍	10(66.7%)	5(33.3%)	n
브리짓존스의 일기	31쌍	12(38.7%)	18(58.1%)	1(3.2%)
섹스 앤더 시티	31쌍	26(83.9%)	4(12.9%)	1(3.2%)

『브리짓존스의 일기』를 제외한 나머지 두 편의 소설의 경우, 추출된 전체 번역쌍 중 『호밀밭의 파수꾼』은 ST보다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된 경우가 총 66.7%이고, ST와 TT 어휘의 격식 변화가 없는 것은 33.3%이며, 『섹스 앤더 시티』는 높아진 사례가 총 83.9%이고 격식이 그대로 보존된 사례는 12.9%에 불과하다. 소설 세 편에서 원문의 어휘 격식보다 번역문의 어휘 격식이 더 높은 경우는 위 표에서 낮아짐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원문에 비해 부정적 감정의 강도가 더 강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번역 쌍 중 총 2쌍밖에 발견되지 않아 대표성을 띠다고 볼 수 없어서 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브리짓존스의 일기』의 경우, ST의 어휘 격식을 TT에서도 보존한 사례가 4대 6의 비율이므로 원문의 문체효과를 번역본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휘 요소가 문체의 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호밀밭의 파수꾼』이나 『섹스 앤더 시티』의 경우, 전체 번역쌍 중에서 약 70-80% 가까이 원문보다 어휘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하여 원문의 문체효과가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제시된 <표2>는 어휘 격식이 높아진 사례 중 비속어를 생략하고 번역한 사례와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2> 높아짐 사례의 번역방법

번역방법	호밀밭의 파수꾼 10쌍	섹스 앤더 시티 26쌍	브리짓존스의 일기 12쌍
비속어 생략	6(60%)	4(15.4%)	1(8.3%)
상위 격식어로 번역	4(40%)	22(84.6%)	11(91.7%)

위의 표에서 보듯이, 『호밀밭의 파수꾼』의 경우, 비속어를 생략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전반적으로 원문의 문체효과가 번역문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나머지 두 편의 소설의 경우, 비속어를 생략하기 보다는 상위 격식어로 대체하여 번역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서 ST의 비속어를 일상어 이상의 상위 등급어로 번역할 경우에도, 원문의 문체효과를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ST의 비속어를 번역문에서 생략하거나 상위 격식어로 번역하는 경우 모두, 원문과 유사한 분위기 즉, ST의 문체효과를 보존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세 편의 소설에서 비속어가 텍스트 내외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휘 격식의 변화는 문체효과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문의 분위기나 원저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문에서 ST의 비속어를 상위의 격식어로 번역하거나 생략하는 빈도가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적으로는 한국어의 언어 규범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는 청자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언어 예절로 간주한다. 본고에서 예로 든 어휘들 중 속어보다는 비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비어는 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어휘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번역자는 제3의 청자인 소설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ST의 비속어를 부정적인 감정이 중화되거나 완전히 제거된 상위 등급의 어휘로 번역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입말에 비해 글말의 격식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소설 속의 대화체 담화문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입말에 최대한 근접하게 묘사된 대화체 문장이다. 그러나 활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문체 격식을 낮추는 특성이 있는 비속어를 여과 없이 그대로 번역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번역자들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번역결과에 대한 원인은 한국어의 언어 규범이나 글말의 쓰기 규범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추론한 가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다 체계화된 연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 결론

상기에서는 비속어가 텍스트 내외적으로 비속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설 세 편의 영한번역본을 비교분석하였다. 격식성에 따라 문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5단계 어휘 격식성 모델을 제시하고 어휘 격식의 변화가 담화문 전체에 가져오는 손실을 살펴보고 텍스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분석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최하위 문체 격식을 구성하는 어휘 요소인 비속어를 번역할 때, 번역문에서 어휘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하거나 해당 어휘 자체를 번역하지 않을 경우, 담화문 전체의 문체 격식이 높아진다. 그 결과 원문과는 다소 다른, 심지어는 상반된 문체효과를 창출하여 저자의 의도, 인물의 성격 및 사회언어학적 배경, 맥락과 같이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소설의 경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이 구사하는 담화문의 격식은 지극히 다채로울 수밖에 없다. 이는 인물들의 개성을 차별화하기 위해 원저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문학적 장치이다. 비속어를 빈번하게 구사하는 인물의 대화체 담화문에서 비속어를 생략하거나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할 경우, 다른 인물들과의 차별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스는 한 기차역에 걸려 있는 두 개의 시계가 각기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행인에게 각기 다른 두 개의 시계가 존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 및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일화이다.

상이한 언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대응하는 격식의 어휘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비어나 속어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 모두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번역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응하는 격식의 어휘를 찾는 작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비속어를 원문과 동일한 격식의 어휘로 번역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본고의 분석대상이 된 세 편의 소설들처럼 비속어가 텍스트 내에서 메타언어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원문의 의미나 원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해당 어휘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있다.

참고문헌

- 김동언 (2009) 『국어 비속어 사전』, 서울: 프리미엄박스.
- 김순미 (2010) 「문학번역에서의 격식성(formality)의 변화」, 『번역학 연구』 11(1): 127-159.
- 김태엽 (2007) 『한국어 대우법』, 서울: 역락.
- 민주현 옮김 (1995) 『Sexy English』, 서울: 제삼기획. (Claire, Elizabeth. (1980) *Dangerous English*, Rochelle Park: Eardley.)
- 유송영 (1994) 「국어청자 대우법에서의 힘과 유대: 불특정 청자 대우를 중심으로」 『국어학』. 24: 291-317.
- 이정복 (1998)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2001)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서울: 태학사.
- 이경우 (2001) 「현대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2)」, 『국어교육』 106: 143-174.
- (2004) 「현대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3)」, 『국어교육』 113: 545-587.
- 최석재 (2007) 「현대국어 대우법의 화계 구분에 대한 고찰: 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서울 지역 구어 환경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37: 397-432.
- 민현주 옮김 (1995) 『Sexy English』, 서울: 제삼기획.
- Joos, Martin (1967) *The Five Clocks*, New York: Harcourt, Brace.
- Newmark, Peter. (1988)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 Pettit, Zoe. (2005) 'Translating register, style, and tone in dubbing and subtitling', *Journal of Specialized Translation*, Retrived from http://www.jostrans.org/issue04/art_pettit.php
- Stevens, P. (1965) *Papers in Languages & Language Teach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Case Study on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Slang and Vulgarism:
Analysis of Shifts in Formality Levels**

Han, Mi-sun
(Ewha Womans University)

In general, both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require proper levels of formality and a change in these levels usually lead to a certain shift in the style of a discourse or a text. In light of the fact,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that, as far as novel translation is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translate slang and vulgar expressions in the original into TT equivalents with corresponding levels of formality. To that end, this study employs a comparative corpus analysis based on a five-level word formality model.

According to existing research, emotional forces of slang and vulgar words in original texts tend to be lessened to some extent or completely missing in translated novels. That's because such expressions in the original are often replaced with those of different levels of formality, resulting in the change in stylistic effects and the diminution of negative emotional values in translated texts.

To illustrate this argument, dialogues containing slang and vulgar words and their translated counterparts were extracted from three novels and their English-Korean translated texts and then the shift in word formality levels between ST and TT was analyzed based on the aforementioned model. These three novels have in common that slang and vulgar words serve metalinguistic functions assigned by original authors. Therefore, by analyzing these three texts, it can be easily clarified that, if these words of lower formality are translated into words of higher formality or omitted completely, there will be

certain losses and which will lead to a failure in reproducing similar stylistic effects to the original.

▶ Key Words: slang, vulgarism, formality, style, stylistic effects

한미선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시간강사

ericka0312@naver.com

관심분야: 평가, 영상번역,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11년 0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09월 02일

게재확정일: 2011년 09월 09일